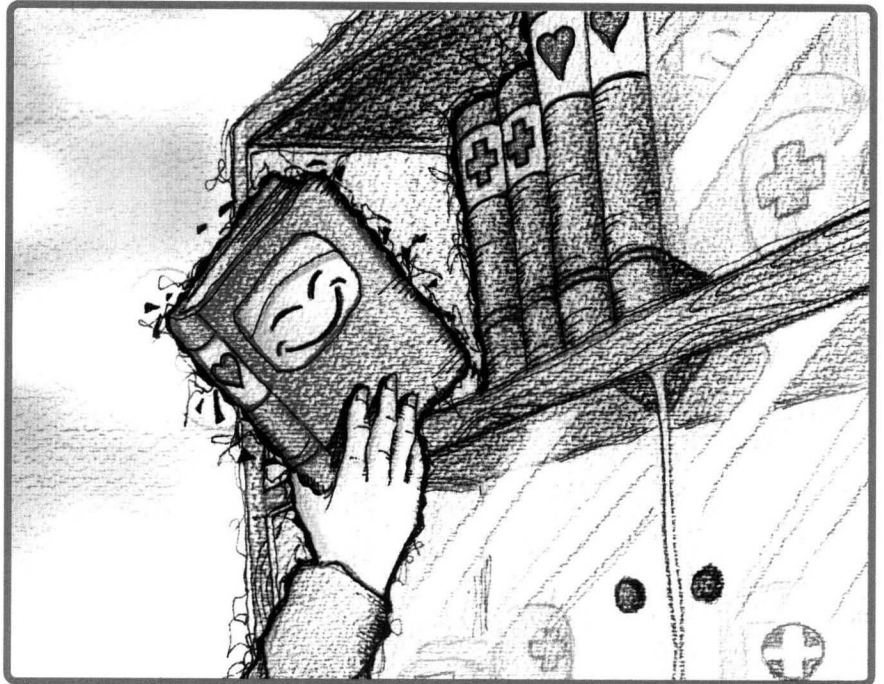


독서치료에 '신비의 약초'를 내용은 이동식을 아는가?



일러스트 | 신창우

글 | 김정근

이동식李東植. 구수하고 서민적인 냄새를 풍기는 이름이다. 동명이인도 많을 법하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동식은 이름이 주는 푸근한 느낌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의 존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웃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삼이사쯤으로 알았다가는 그야말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어느 한 전문분야의 개척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 다스리는 일에 큰 도움을 가져다주는 사계의 거장이다. 80대에 속하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를 문제 삼는 것은 그의 성취 자체 때문은 아니다. 그의 본업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도 하다. 내가 그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의 업적이 나의 관심사인 독서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일한 이유

다. 이야기는 지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이런 저런 눈치도 없이 나와 같이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우리 연수 하자. 그 래야 가을에 걱정이 없지.”

나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독서치료 모임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연수’라고 했지만 내용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다만 독서치료 모임의 진행자로서 가을에 만날 치료 모임의 참여자들 앞에 좀더 자신 있게 서기 위해 실력과 자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 취지였다. 그들 중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외래교수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역의 단위 공공도서관에 개설된 독서치료 과정의 담당자도 있었다. 여성부가 지원하는 인력센터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맡아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내 나름의 사명감과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가을에 탁월

일에 대비하여 방학 동안 스스로 단련하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나의 표현은 이랬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나도 마찬가지다.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씹먹고 있어서야 되겠냐?”

나는 사실 지금 막 시작된,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처음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행자(presider)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확신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연수’ 교재도 미리 생각해 두고 있었다. 내가 생각한 교재는 당시 내 판단으로 진행자들을 위해서는 ‘신비의 약초’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로서는 철석같이 믿고 한 이 제안이 성사되지 못하고 말았다. 짐통더위 때문이었을까? 나 자신의 추진력이 부족해서였을까? 예상 참가자들의 소극성이 문제였을까? 아무튼 이래저래 연수의 기

회는 물건너가고 여름도 끝나고 말았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준비를 갖추는 선에서 가을학기를 맞이하였다. 나는 아쉽지만 지는 수밖에 없었다.

이동식은 누구인가? 바로 지난 여름 내가 독서치료 모임의 진행자들을 위한 '연수' 교재로서 '신비의 약초'로 꼽았던 책들의 저자이다. 이동식의 책들은 하필 내 주변의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처음 이동식의 책들을 접했을 때 너무도 크게 감동한 나머지 남에게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럼 이제 그가 지은 책들을 소개하기 전에 지은이를 이해하는 순서부터 가져보기로 하자. 책의 날개에서 인용해 본다.

1920년 경북 왜관에서 태어나 대구의전을 졸업, 서울의대와 뉴욕대학교 신경정신과, 뉴욕의 윌리엄알란 손화이트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이자 의학박사이다. 수도의대(현 고려대)와 경북의대 교수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과 한국카운슬러협회 고문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연세의대 신경정신과 외래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동북의원(신경정신과)에서 주로 정


신치료를 하고 있다.

이 땅에서 태어난 한 개인으로서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자기실현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성공적인 삶과 일의 전반에 걸쳐서가 아니다. 유감스럽지만 그의 책들에 국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눈에 그의 책들이 '연수'를 위한 교재로 다가섰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나의 능력 바깥에 있으며 인연의 저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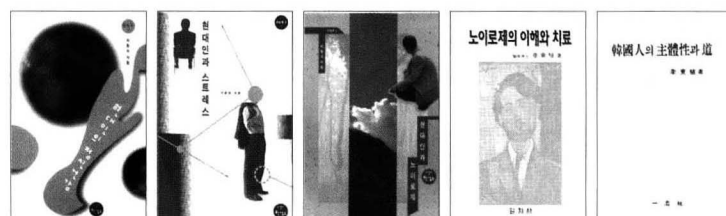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동식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권의 책을 내놓았다. 《현대인의 정신건강》 《현대인과 스트레스》 《현대인과 노이로제》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가 그것이다. 내용은 임상경험을 기초로 써낸 짧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이동식의 책들에 접촉된 것은 부끄럽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그런데 사실 이동식의 책들은 대부분 지난 이삼십 년 동안 우리 출판시장에 나와 있었다. 인터넷서점에도 다 올라와 있다. 말하자면 장기적인 스테디셀러였던 것이다. 책에 적혀 있는 출판사항을 보면 거의 다 10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이제 내가 이동식의 책들을 독서치료

모임의 진행자들을 위한 교재로 '선정' 하는 이유를 밝힐 차례이다. 첫째, 그의 책들은 지난 시기 우리사회의 정신장애와 치료의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950년대에 적은 글로부터 1980년대에 적은 글까지 보인다. 글 속에 번뜩이는 그의 분석력은 가히 압권이다. 둘째, 서술을 사례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모든 경우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활용한다. 따라서 읽기 쉽고 재미있다. 비전문가들이 접근하기 쉽다. 문외한이라도 그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분석학의 기본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그의 분석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불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불교적 관점을 중시한다. 그는 그것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한다. 친근감이 넘치는 우리식 정신분석학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의 문화적 관점이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는 번역서를 읽을 때 오는 소외감이 줄어든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독서치료는 오랜 상담기법의 한 갈래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정신과의사 이동식의 정신분석학을 알면 안목이 달라질 수 있다. 그의 메시지를 원용했을 때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천은 한 단계 높은 곳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 《현대인의 정신건강》 이동식 지음 | 한강수 | 230쪽 | 값 6,500원
- 《현대인과 스트레스》 이동식 지음 | 한강수 | 276쪽 | 값 6,500원
- 《현대인과 노이로제》 이동식 지음 | 한강수 | 328쪽 | 값 6,000원
-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이동식 지음 | 일지사 | 286쪽 | 값 12,000원
-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이동식 지음 | 일지사 | 374쪽 | 값 12,000원



이 글을 쓴 김정은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같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